

【논 문】

조선인 ‘위안부’, 유동하는 표상

— 91년 이전 김일면, 임종국의 ‘위안부’ 텍스트를 중심으로

이 지 은*

차례

- I. 서론
- II. 조선인 ‘위안부’ 표상과 텍스트의 흐름
- III. ‘제국·민족’ 담성의 분열과 공모
- IV. 만들어진 ‘위안부’의 목소리와 ‘수기’라는 형식
- V. 성애화된 전장의 여성

국문초록

이 글은 1991년 조선인 ‘위안부’의 공식적 증언이 나타나기 전, 한국과 일본 각기 다른 담론의 장에서 ‘위안부’를 어떻게 재현해 왔는지에 관하여 살펴 보았다. 최초 증언 이전에도 ‘위안부’에 관한 재현은 많았고, 재현된 ‘위안부’의 모습은 발화자의 위치와 욕망에 의해 굴절되어 있었다. 91년 이전 ‘위안부’ 재현 텍스트는 각 발화 주체의 위치에서 ‘위안부’가 어떻게 인식되었으며, 이에 따라 어떻게 왜곡·굴절되었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먼저, ‘위안부’는 참전 군인의 회고 속에서 등장했다. ‘위안부’는 참전 병사들의 기록 속에서 전쟁과 군국주의를 향수하게 하는 소재로써, 혹은 그 시절을 ‘위안’하는 존재로 재현되었다. 나아가 전쟁기록물의 출판 상황과 맞물려 전시 성폭력은 남성 판타지를 충족시켜주는 서사로 왜곡되어 소비되었다. 한편 임종국과 재일학자 김일면은 공식 증언자도 문서도 없던 시절 군인·군속들의 회고에서 발견되는 ‘위안부’의 모습을 수집하여 그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다. 그들에 의해 재현된 ‘위안부’는 제국에 의해 훼손된 민족과 등가적 의

* 서울과기대 강사.

미를 지낸다. 이러한 인식 하에서 ‘위안부’의 참상 곧, ‘훼손된 육체’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제국에 대한 적개심도 비례하여 커진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미 순결 이데올로기가 전제되어 있고, 따라서 정작 ‘위안부’ 피해자는 ‘훼손된 존재’로서 사회에 드러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인식은 근본적으로 남성중심적인 사고 안에서 가능한 것이고, ‘민족·제국’의 남성이 공유하는 기반 위에서 ‘위안부’는 다시 ‘위안하는 존재’로 타자화되었다.

주제어: 조선인 위안부, 전쟁기록물, 위안부 표상, 임종국, 김일면, 공식 증언 이전

I. 서론

일본군 조선인 ‘위안부’ 문제는 1991년 김학순의 증언으로 본격화되었다. ‘위안부’ 존재를 부인하는 일본 정부에 항의하며, 김학순은 ‘살아있는 증거’로서 나타났다.¹⁾ 그러나 ‘위안부’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부정되어 온 것과 별개로 전후 일본에서 쏟아져 나온 전쟁기록물이나 참전병사들의 수기, 문학작품에서는 병사의 시선으로 재현된 ‘위안부’의 모습이 존재했다. 일본 내에서 소설과 영화로 조금씩 언급되던 ‘위안부’가 본격적으로 다루어 진 것은 1970년대 중반이다. 신문기자였던 센다 가코(千田夏光)의 『從軍慰安婦-“聲なき女”八万人の告發(종군위안부 “목소리 없는 여자” 8만 명의 고백)』(双葉社, 1973)과 재일조선인 저널리스트 김일면(金一勉)의 『天皇の軍隊と朝鮮人慰安婦(천황

1) 조선인 ‘위안부’의 최초 증언은 1975년 오키나와에 살고 있던 배봉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배봉기의 증언은 <교토통신> 등 일본 언론에 실렸고, 1984년에는 태국에 살고 있던 ‘위안부’ 피해자 노수복의 증언이 남한 언론을 통해 소개되기도 했으나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이후 한국에서 ‘위안부’가 문제화 된 것은 1990년 1월, 윤정옥이 한겨레신문에 ‘정신대 원혼의 발자취’를 발표하면서다. 1991년 최초 증언자 김학순이 나타났다. ‘위안부’ 운동이 본격화된다. 김학순의 증언 이후, 침묵하던 ‘위안부’ 생존자들이 나타났다. 증언자들이 나타남에 따라 ‘위안부’ 운동도 큰 힘을 받는다. 1990년 성립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은 92년부터 수요시위를 시작했다. 한편, 일본의 역사학자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는 1992년 1월 11일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을 통해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 도서관에서 발굴한 자료를 공개했다. 그 자료는 일본 정부와 군이 ‘위안부’ 동원과 ‘위안소’ 설치에 관여한 사실을 입증하는 최초의 공문서다.

의 군대와 조선인 위안부』(三一書房, 1976)가 당시 발간된 책이다.²⁾ 한편, 이 시기 한국에서 발표된 ‘위안부’에 관한 선구적 논문은 「다큐멘터리 女子挺身隊」(『月刊中央』, 1973.11)인데, 논문의 저자는 『친일문학론』으로 잘 알려진 임종국이다.

임종국의 『친일문학론』(평화출판사, 1966)은 1965년 한일수교라는 ‘침략의 예감’에 대응한 실천적 결과물이다. 『친일문학론』 집필 계기가 어려할 때, 반민족 행위자/식민지배자에 대한 기억을 복원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피식민자의 기억에 대한 글쓰기 역시 요청된다. 실제로 임종국은 『친일문학론』 이후, 「빼앗기고 끌려가고-징용·징병·공출」(『光復을 찾아서』, 1969), 「女子挺身隊」(『月刊中央』, 1973.11), 「徵用」(『月刊中央』, 1974.1), 「學徒志願兵」(『月刊中央』, 1974.3) 등 강제로 징용·징병된 사람들에 대한 논문을 기고한다. 특히 「女子挺身隊」와 「徵用」 두 편의 글은 강제 징용·징병자의 체험담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때 임종국이 수집한 피식민의 기억은 많은 부분 재일조선인 박경식의 『朝鮮人強制連行の記録(조선인 강제연행의 기록)』(未來社, 1965)에서 빌려 온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번역의 과정에서 임종국이 발견한 것은 조선인 ‘위안부’라는 기억의 공백이다. 임종국은 누락된 기억을 메꾸기 위해 일본에서 생산되는 각종 전쟁기록물과 회고담을 번역하고 발췌한다. ‘그들의 기억’을 통해서 누락된 ‘우리의 기억’을 재구성하는 프로젝트인 것이다. 이렇게 쓰인 글이 「여자정신대」이다. 흥미롭게도 1976년 발간된 김일면의 『천황의 군대와 조선인 위안부』는 임종국의 이러한 기획을 반복·심화한 것이다.³⁾ 여기에는 임종국의 「여자정신대」를 비롯하여 ‘전사(戰史)’, ‘비사(秘史)’, ‘비록(秘錄)'

2)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정대정 역, 2016,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역사공간, 56쪽.

3) 최근 발표된 이영호(2017)의 「위안부 문제의 등장과 재일조선인 김일면」(『일본학보』113)은 ‘위안부’ 문제에 관한 재일조선인의 저작을 살피고 있다. 이 논문에 의하면 김일면은 『天皇の軍隊と朝鮮人慰安婦』를 발간하기 전인 1974년 5월 재일조선인 잡지 『季刊まだん』에 ‘위안부’ 관련 글을 실었던 것으로 보인다. 임종국의 「여자정신대」는 73년 11월 발표되고, 이듬해 3월 일본어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季刊まだん』 소개의 김일면의 글보다 앞선다.

등의 이름이 붙은 전 일본군 장교나 병사의 회고담, 참전 작가의 수기 등이 수집되어 있다. 또 만주 일대를 비롯하여 버마, 필리핀, 남태평양 일대 등에 있었던 ‘위안부’의 모습을 지역별·민족별로 분류하여 제시하였고, 남성 편집자의 기획과 가필 아래 재현된 ‘위안부’ 여성의 목소리를 소개하기도 했다. 전후 일본에서 출간된 방대한 전쟁기록물 속에서 ‘위안부’에 관련된 부분을 저자가 발췌·인용한 것이다. 1981년 임종국은 김일면의 책을 『정신대실록』이라 고치고, ‘편집자 임종국’으로 번역·발간한다. 그리하여 누락된 민족의 기억은 ‘비록(秘錄)’에서 ‘실록(實錄)’으로 번역된다. 나아가 『정신대실록』은 소설가 윤정모에게 전해지고, 이는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의 창작으로 이어지기도 한다.⁴⁾ 요컨대, ‘위안부’라는 누락된 기억은 ‘朝鮮人 強制連行の記録』(1965)→『삐앗기고 끌려가고-징용·징병·공출』(1969), 『女子挺身隊』(『月刊中央』, 1973.11)/『女子挺身隊』(『아시아公論』, 1974.3)→『天皇の軍隊と朝鮮人慰安婦』(1976)→『정신대실록』(1981)→『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1982, 人文堂)로 재구성되고, 번역되며, 공유되어 왔다.

이와 같은 텍스트의 흐름은 ‘위안부’라는 표상이 단일한 주체나 담론장에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과 그들이 속해있는 담론장을 오가며 형성된 것임을 의미한다. 1991년까지 한국과 일본의 서로 다른 담론적 지평, 그곳에 위치한 각기 다른 욕망의 주체들이 ‘위안부’라는 개념을 주고받으며 이 표상을 형성해온 것이다. 다양한 텍스트들 속에서 ‘위안부’라는 표상은 끊임없이 자리를 바꾸어 왔는데, 이는 어원 그대로의 ‘번역(trans 반대편으로 -latus이동 -ete 하게하다)’ 즉, 서로 상대 쪽으로 자리를 바꾸며 다양한 의미론적 지층을 만들어 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번역 과정에서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주체들은 대립하기도 하고 때로는 공모하며 ‘위안부’의 표상을

4) 윤정모가 『네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人文堂, 1982)를 쓰게 된 것은 한남동 뒷골목에서 “백인이 조그마한 우리 여성의 머리채를 질질 끌고 가는 것을 목격하고 깊은 충격”을 받은 탓이라고 한다. 당시 작가는 ‘현지처’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 나라에 위안부가 생긴 유래를 찾다가 임종국 선생님의 《정신대실록》을 보게 되었다”고 한다(윤정모, 1988, 『지은이의 말-내 어린 딸을 보면서』,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 고려원, 3쪽).

구성해낸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들은 ‘위안부’라는 표상을 통해 서로 다른 효과를 창출하려하지만 유사한 욕망을 공유하고 있기도 하다.

텍스트의 흐름 속에서 발견되는 ‘번역’의 층위를 구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가 언어의 번역이고, 둘째가 민족의 번역이며, 셋째가 젠더의 번역이다. 일본군 병사의 눈에 비친 ‘위안부’에 대한 기억을 ‘위안부’의 기억으로 옮기는 데에는 이 세 가지의 번역이 모두 필요하다. 이 글은 이러한 텍스트의 흐름을 추적하면서, 민족의 기억에서 누락된 ‘위안부’가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또 번역되는 과정에 어떤 굴절이 생겨났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 글은 최초 공식적 증언자가 출현하기 전인 1991년 이전 ‘위안부’ 재현의 양상을 통해 ‘위안부’ 개념의 고고학(archeology)적 기술을 시도한다.⁵⁾ 이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위안부’가 인식되는 기원의 한 단면을 살펴보고, ‘위안부’의 목소리가 어떻게 타자의 목소리에 의해 왜곡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논증하려 한다. 나아가 이 왜곡의 양상 속에서 ‘위안부’에 투사된 한국과 일본 남성 주체의 욕망이 무엇인지, 어떻게 공모하고 분기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조선인 ‘위안부’ 표상과 텍스트의 흐름

먼저 엄영식(嚴永植)과 공저라고 표기되어 있는 임종국의 『빼앗기고 끌려가고-징용·징병·공출』(『月刊中央』, 1969)은 식민지 제도와 법령을 중심으로 쓰인 논문 형식의 글이다. 징병·징용의 법령 및 실제 동원 방식, 지역별 동

5) 고고학(考古學, archeology)은 개념의 시원을 탐색함과 동시에 개념이 작동하는 규칙과 그 효과를 살펴보는 것을 의미한다. ‘위안부’라는 개념의 어원과, 이와 가족유사성을 지닌 용어들이나 정신대, 빼 등에 대한 분석은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 이미 진행된 바 있다. 이 논문은 ‘위안부’라는 개념의 시원을 살펴기보다는, 이 용어가 구성되었던 당대의 담론 장을 살펴봄으로써 이 개념이 현재의 우리에게 미치고 있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위안부’가 무엇을 지시하는가?” 혹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문제 삼는 것보다 이것이 어떻게 작동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현재의 ‘위안부’ 담론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지점이 될 것이다.

원자 수치 등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이 글의 말미에 ‘여자정신대’도 함께 다루어진다. 이 글은 ‘여자 근로 정신대령’이 모든 여성을 상비요원으로 만들어, “한국의 여성들은 남자들과 하등 구별됨이 없이 일본 본토의 군수 공장으로, 그리고 후방지역의 증산운동에, 그리고 심지어는 남양 각 방면의 최선에까지 강제투입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뒤이어 “긴축·내핍생활의 결과로 하여 폐업하지 않을 수 없었던 수다한 기생, 또는 일반 부녀자들 까지도 남방 각 전선에 군인 위안부로 동원되었”다고 덧붙인다. 그러나 ‘위안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이 없다.⁶⁾⁷⁾

이에 부족하다고 여겼는지 임종국은 『여자정신대』라는 글을 다시 쓴다. 이 글은 『朝鮮人強制連行の記録(조선인 강제연행의 기록)』(未來社, 1965)에 실려 있는 옥치수의 체험담으로 시작한다. 옥치수(玉致守)는 경남 통영 출신으로, 1942년 8월 육군군속으로 징용되어 우지나(宇品)항의 육군 수송부대에 배속되었다. 그는 1945년 1월 부상당할 때까지 남방의 군사기지에 군인, 군속, 군수물자 등을 운반하는 노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옥치수는 수송부대에 배속되었기에 강제 징용된 동포들을 많이 목격할 수 있었고, 그 중에는 여자정신대도 있었다. 『조선인 강제연행의 기록』에 실린 증언에서 옥치수는 한 일조약을 앞두고 보상에서 배제되는 ‘전 일본군 재일한국상이군인’의 처지에 대해 호소하고, 자신들을 배제하는 일본정부를 강하게 비판한다.⁸⁾ 임종

6) 林鐘國·嚴永植, 1969, 『빼앗기고 끌려가고-징용·징병·공출』, 申奭鎬 엮음, 『光復을 찾아서』, 新丘文化社, 314~315쪽.

7) 정신대와 ‘위안부’는 그 용어 사용을 두고 논란이 있다. 하타 이쿠히코(秦郁彦), 박유하 등은 여자정신대와 ‘위안부’가 전혀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혼동되는 풍조가 계속되었다고 주장한다. 여자정신대는 전시 하에서 여성을 군수공장 등으로 동원한 것이지 ‘위안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반대측은 당대 용례와 피해자 증언을 근거로 하여 반박한다. 정신대가 전시 하 여성 노동력 확보를 위한 강제 징용이 맞지만, 1940년대 당시 이미 여자정신대로 끌려가면 ‘군인의 위안’을 담당하게 된다는 ‘소문’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인 김복동의 증언에서도 본인이 ‘데이신파이’로 끌려갔다고 말한다. 즉, 당시 통용되던 의미로 정신대가 ‘위안부’를 포함하는 의미였다는 뜻이다(이타카키 류타·김부자 엮음, 배영미·고영진 역, 『‘위안부’문제와 식민지 지배 책임』, 삶창, 2016, 26~35쪽).

임종국도 정신대와 ‘위안부’를 모두 사용하는데, 그의 용례를 따라가 보면, 강제 징용된 조선 여자를 ‘여자정신대’로, 그 중 일본군의 성노예가 된 이들을 ‘위안부’로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은 이러한 증언 가운데 ‘위안부’를 목격한 부분을 절취해 내어 ‘위안부’라는 누락된 기억을 재구성해 보려 한다.

『여자정신대』는 옥치수의 체험담 뿐 아니라 여러 회고나 증언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다.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머마』派遣軍 參謀이던 辻政信… 手記 『15대 1』”⁹⁾, “1944년 9월 南方航空部 比島(필리핀)支部에 근무한 日女 小牧左知子の 『女軍敗走記』”,¹⁰⁾ “『사이판』島 日軍守備隊”에서 살아남은 해군 青木隆의 수기¹¹⁾, “特別編成海軍陸戰隊의 機銃隊長으로 종군한 大高勇治의 手記 『죽음의 섬은 숨쉬고 있다』”¹²⁾ 등의 일본군 장교 및 병사들의 수기·기록물과 조선인 노무자의 증언¹³⁾이 인용되어 있다. 특히 조선인 노무자의 증언은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조선인 강제연행의 기록』에서 발췌·요약한 것이다. 간간히 관련 법령이나 지원병 모집 현황 등의 제도적인 사안을 설명하고 있으나 체험자들의 이야기가 글의 주된 골격을 이루고 있다.

요컨대, 『여자정신대』는 ‘위안부’에 관한 공문서도, 당사자도 없던 당시,

- 8) 박경식, 1965, 앞의 책, 123~125쪽.
- 9) 츠지 마사노부(辻政信)는 일본의 육군 군인이자 정치가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활약했으며, 종전 후에는 대좌(대령)으로 예편하여 정치계로 입문하였고, 베트남 전쟁 중에 라 오스를 방문했다가 실종되었다. 1950년대 일본에서는 막료 근무 경험을 가진 육·해군 영관급 엘리트장교의 저작이 잇달아 출판되어 베스트셀러가 된다. 대표적인 예가 1950년에 출판된 츠지 마사노부의 『十五對—(15대 1)』(酣灯社, 1950)과 『潛行三千里(잠행 3천리)』(毎日新聞社, 1950)이다. 그 외 이노구치 리키헤이(猪口力平)·나카지마 타다시(中島正)의 『신평특별공격대』, 후치다 미츠오(淵田美津雄)·오쿠미야 마사타케(奥宮正武)의 『미드웨이』와 『기동부대』, 1952년에 출판된 쿠사카 류노스케(草鹿龍之助)의 『연합함대』, 약간 시대를 내려와 1956년에 출판된 핫토리 타쿠시로(服部卓四郎)의 『대동아전쟁 전사 1~8』 등이 있다. 이 시기 일본의 ‘전쟁기록물’에 관해서는 요시다 유타카(吉田豊), 하종문·이애숙 역, 2004, 『일본인의 전쟁관』, 역사비평사, 95~99쪽 참조.
- 10) 이는 『實錄太平洋戰爭 第五卷 硫黄島血戰から沖繩玉碎まで(실록 태평양전쟁 제 5권. 이오지마 혈전에서 오키나와 옥쇄까지)』(中央公論社, 1960)에 수록된 小牧左知子の 『女軍敗走記(여군패주기)』를 말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당시 남방 항공 운송부 필리핀 지부 근무(當時南方航空輸送部比良支部勤務)”라고 소개되어 있다.
- 11) 이에 관해서는 서명과 글의 제목이 소개되어 있지 않다.
- 12) 오타다 유우지(大高勇治, 1909-1981)는 해군 통신 학교 고등과를 졸업한 후 태평양 전쟁에 일본 구축함 부대 사령관으로 전쟁에 참여했다. 임종국이 인용하고 있는 책은 1951년에 발간된 『テニアン—死の島は生きている(테니안: 죽음의 섬은 살아있다)』(光文社, 1951)이다.
- 13) 『여자정신대』에 등장하는 조선인 노무자는 총 6명(金×炳, 玉致守, 金善永, 金大植, 姜性一, 尹宗洙)이며 이 중 2명(金×炳, 玉致守)의 체험담만이 ‘위안부’와 관련된다.

전장의 여러 증언을 모아 그녀들을 재구성하려 했던 시도였다. 그러나 여러 자료를 섭렵한 저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여자정신대와 관련 있는 진술은 매우 적다. 가령, “최전선의 陸地에까지 天皇島의 娘子들이 진출해 있으며 조선 여자들이 따르고 있었다”,¹⁴⁾ “『버머』派遣軍 각 師團에는 다수한 조선 여성이 慰安婦로서 배치되어 있었다. 一개 部隊에 대체로 20명 전후가 있었으며, 그녀들도 군인과 더불어 거의 전원이 사망하였다”¹⁵⁾와 같은 단편적 서술이 각종 기록물에서 발췌한 ‘위안부’에 관한 진술이다.

그러나 임종국은 ‘위안부’에 대한 단편적 사실 이상으로 그들의 체험과 전장의 모습을 전하고자 했던 것 같다. 문제는 수집한 체험담이 대개 군인·군속 여성이나 조선인 노무자에 관한 것일 뿐, ‘위안부’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이 글은 “그럼 이들(조선인 ‘위안부’-인용자)이 죽어간 戰線의 상태를 한 여성의 기록으로 들여다보자.”¹⁶⁾, “그럼 그보다 『고급』일 수 없던 部類들은?”¹⁷⁾, “女子挺身隊員들도 그 끌려간 방식에는 추호도 다를 바가 없었다”¹⁸⁾, “그렇지만 14~15만명이 동원됐다는 女子挺身隊員들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統計나마도 발표된 것이 없다”¹⁹⁾라는 식으로 전개된다. 다시 말해, ‘위안부’의 단편적 진술을 제시하고, 그러한 ‘위안부’가 죽어간 전장의 풍경을 병사·군속의 전쟁 체험담을 통해 유추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는 일본군 고급 여성 사무원의 일화를 서술하고, “『고급』일 수 없었던” ‘위안부’의 고초를 상상하게 한다.

이 글의 말미에는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위안부’의 목소리가 삽입되어 있다. 세 명의 ‘위안부’들은 마지막 귀환열차가 막 출발한 뒤 당도했고, 기

14) 임종국, 1973.11, 『여자정신대』, 『月刊中央』, 113쪽. 임종국은 이 부분을 츠지 마사노부(辻政信)의 『15대1』에서 인용했음을 밝히고 있다.

15) 임종국, 1973.11, 위의 글, 113쪽. “『버머』戰線에서 九死一生으로 生還한 日人 中野禮造가 말했다는 要旨”다. 원문의 출처는 나타나지 않는다.

16) 임종국, 1973.11, 위의 글, 113쪽.

17) 임종국, 1973.11, 위의 글, 115쪽.

18) 임종국, 1973.11, 위의 글, 119쪽.

19) 임종국, 1973.11, 위의 글, 121쪽.

차를 세우기 위해 선로 위에 누웠지만 기차는 그녀들의 몸을 치고 지나간다. 출처가 모호한 이 부분은 3인칭 시점의 서술로 인물의 대화와 장면 묘사가 제시되어 마치 소설의 한 장면 같은 인상을 준다.

그때 驛을 향해서 저만치 달려 오는 세 사람의 여자가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고 있었다. 女子挺身隊로 끌려와서 勞役과 賣春에 종사하던 한국인 여자.

이미 썩어가는 몸뚱이지만 歸鄉의 꿈은 성한 사람들이나 다름이 없었다. 아니, 몸뚱이가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고국에 돌아가고 싶은 情은 한결 간절했다고 할까?

『태워 줘요! 차를 세워요! 태워 주세요!』

하고 그들은 列車를 향해서 渾身으로 絶叫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최후의 南行列車는 그들 세 여자를 위해서 『브레이크』를 걸어 주지 않았다.

(중략)

우뢰소리처럼, 마지막 차바퀴가 지나갔을 때, 線路 위에는 그들 세 여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異域 만리에 끌려와서 못 사나이들에게 快樂을 주던 그래도 회기만 하던 세 女子挺身隊員들의 육체가……. 대신 선로 위에는 점점히 鮮血이 뿌려져 있었다. 여기저기 찢겨서 떨어져 나간 것은 팔도 다리도 머리도 아닌 끔찍한 고기 덩어리! 시뻘건 고기 덩어리만 팽개쳐 둔 채 최후의 南行列車는 달아나 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어느 책에서 이러한 귀절을 읽으며 筆者는 더할 수 없는 슬픔을 의식하고 있었다. 이렇게 죽어간 女子挺身隊員들의, 한국인 징용노무자들의 遺骨이 지금도 異域만리에서 뒹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戰後의 조치는 어떠했는가?²⁰⁾

‘원 저자-인용자’를 구별할 수 없는 묘사에서 여자정신대는 “勞役과 賣春에 종사하던 한국인 여자”이자 “썩어가는 몸뚱이”를 가진 여성으로 표현된다. 문제적인 지점은 이들의 귀향이 처참하게 실패하고 “끔찍한 고기 덩어

20) 임중국, 1973.11, 위의 글, 120~121쪽.

리”가 되었을 때 “희기만 하던” 육체로 표현된다는 것이다. ‘끌려와’ ‘매춘’을 해서 ‘씩어가는 몸뚱이’로 묘사된 그녀들은 귀향이 좌절된 후에 ‘희기만 한 육체’를 가진 ‘순결한’ 희생자가 되고, 징용자의 유골과 함께 미귀환자가 되었기에 민족의 ‘피해자’로 남는다. 이러한 서술의 흐름은 ‘위안부’를 전쟁 피해자 이전에 ‘더러운 몸’이라고 낙인찍는 인식구조를 보여준다. 이러한 인식 위에서 ‘위안부’의 서사는 비극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설령 그녀들이 무사히 귀환한다고 해도 ‘위안부’는 피해 사실을 숨길 수밖에 없다. 임종국은 마지막에 그녀들에 대한 전후 조치에 대해 따져 묻고 있지만, 이는 오직 죽은 자에 대해서만 유효한 말이다.

임종국의 『여자정신대』는 이듬해 3월 『아시아公論(아시아공론)』에 동일 제목으로 번역되어 실린다. 이 잡지는 한국홍보협회(韓國弘報協會)가 “對外弘報 활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발간한 일어판 잡지로, “國內新聞잡지에 게재된 論文, 記事, 文學작품 가운데 주요내용을 발췌하여 再編輯한 것으로 日本內 주요기관 및 도서관에 배포”한 것이다.²¹⁾ 일본어로 번역된 『女子挺身隊』는 부제를 비롯하여 소제목의 수정이 다소 있긴 하나 세부 내용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 애초 『조선인 강제연행의 기록』이나, 일본에서 발간된 전쟁기록물을 기반으로 한 이 글이 다시 일본어로 번역되고, 일본 독자를 향해 발신되었다는 점이 흥미롭다.

志願兵 제2期 출신 金X柄이 전한 바에 의하면-

한국인 다수를 포함한 女子群이 ‘트럭’에 실려서 도착했다. 이른바 『女子挺身隊』라는 慰安婦들이다. 幕舎는 칸막이를 해서 그들 女子群에게 배당되고 한 부대 전원이 廣場에 정렬했다. 部隊長은 뭐라고 訓示를 한 채 여자가 기다리는 宿舎로 되돌아 갔다.

兵卒들은 칸막이를 한 幕舎 앞에서 줄 지어서서 초조하게 자기 차레를 기다렸다. 한놈이 들어갔다 나오는데 10분 미만, 길면 10여분이다. 15분만 되면 줄 지어 선 兵卒들의 입에서 악다구니가 쏟아져 나왔다.

21) 『『아시아公論』發刊 弘協日地域에 配布』, 『매일경제』, 1972.9.8.

여자는 옷을 벗고 입고 할 여가도 없었다. 천정을 향한 채 누워서 그들은 한날 나무토막에 불과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여자의 下半身은 별경게 물이 들기 시작했다. 행렬의 3분의 1이 줄기도 전에 그들은 醫務室로 떠메어가고 말더라는 것이었다.²²⁾

인용문은 임종국의 「여자 정신대」에 실린 ‘위안부’에 대한 구체적 증언으로 유일한 장면이다. 위 단락은 1976년 재일학자 김일면이 저술한 『天皇の軍隊と朝鮮人慰安婦(천황의 군대와 조선인 위안부)』(三一書房)에 일본어본으로 인용된다. 김일면의 책은 중일전쟁부터 태평양전쟁까지 전선의 상황과 일본 제국의 식민지 통치정책을 배경으로 설명하고, 회고·체험·수기·전쟁기록물에서 발견되는 ‘위안부’의 모습을 발취·인용하여 그녀들의 구체적인 모습을 재구해 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이 책의 접근 방식 자체는 임종국의 「여자정신대」와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임종국은 1981년 김일면의 책을 『정신대실록』(일월서각)이라는 제목으로 번역한다. 그런데 무슨 까닭인지, 임종국은 이 책을 번역하면서 저자 김일면의 이름을 명기하지 않고 자신을 ‘편저자’로 표기한다. 두 텍스트는 전체적 구성이나 주장에서 차이가 없다. 그러나 임종국이 단순히 언어의 ‘번역자’에만 머물러 있다고는 할 수는 없다. 장·절 제목을 고쳤으며, 극히 드물긴 하지만 불필요한 부분은 생략하기도 하고, 짧은 논평을 덧붙이기도 했다. 특히 김일면이 「후기(あとがき)」로 덧붙인 작가의 말을 임종국은 「이 잔혹의 기록을 정리하면서」라는 제목으로 각색한다. 임종국은 원저자 후기의 많은 부분을 삭제하는데, 그것은 크게 1) ‘노동자·여성·식민지’ 해방을 함께 파악한 것, 2) “신일본”의 출발은 구폐의 적발에서 비롯된다고 한 것, 3) 여권(女權)을 강조한 것이다. 더불어 김일면은 여기 수집된 자료들이 전후 경제 회복을 바탕으로 “전쟁터 향수에서 제멋대로 한 조각씩” 나온 것, 그것이 증언이긴 하지만 “아주 표피”일 뿐이라는 점도 쓰고 있다. 임종국은 이러한

22) 임종국, 1973.11, 앞의 글, 115-116쪽.

부분을 한국 독자에게 맞도록 삭제한 후, 후기의 말미에 ‘1981년 6월 편저자 林種國’이라고 서명한다.²³⁾

Ⅲ. ‘제국-민족’ 남성의 분열과 공모

김일면의 『천황의 군대와 조선인 위안부』는 “<천황 군대>의 피기성과 야수성”을 폭로하고,²⁴⁾ “과거 세계사 오욕의 양극인 식민지 생탈 전쟁의 잔혹 행위를 통하여 앞날의 역사적 교훈”²⁵⁾으로 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때 ‘천황군대의 피기성과 야수성’의 요체가 위안소 제도다. 이 책은 “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조선 민족의 말살 음모’로 파악하고, 위안부 동원에서는 ‘인간사냥’과 같은 수법이 동원되었다”고 쓰고 있다는 점에서 “다분히 문학적인 책”으로 평가된다.²⁶⁾ 그러나 이 책이 ‘문학적’인 것은 단순히 저자가 민족감정에 휩싸여 서술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텍스트가 수많은 ‘재현

23) 이 책은 같은 출판사 일월서각에서 『데이신파이 : 정신대의 아픔』(1990), 『정신대 : 온 삶을 갈가리 찢기운 정신대 여인들의 처절하고 생생한 현장 기록』(1992)로 재출간된다. 두 번 모두 저자는 김정면, 번역은 임종국으로 표기된다. 이는 임종국 사후로, 그가 죽기 전까지는 수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와다 하루키 역시 “그 유명한 『친일문학론』의 저자가 왜 번역한 것을 자신의 편저로 바꿔 출판하였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시한다. 다만 추측해 보건데, 임종국은 여러 증언이 발췌되어 있는 이 책을 ‘자료집’의 성격으로 본 것이 아닌가 한다. 자신의 글 『여자정신대』가 이러한 기획을 선택하고 있고, 『여자정신대』가 김일면의 책에 한 구절 인용되어 있어 그리 표기한 것이 아닌가 한다. 또, 당시 한일 정세, 재일조선인과 남한의 관계 등을 숙고해 볼 필요도 있다. 이영호는 김일면의 책이 임종국의 이름으로 출간된 것을 김일면의 국적 때문으로 추정한다(이영호, 2017, 앞의 논문, 157쪽).

그러나 확실히 임종국은 단순히 언어를 옮기는 번역자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던 것 같다. 드물지만 저자의 논평을 삭제·첨가한 것, 후기를 대폭 삭제하고 한국독자에 맞게 바꾼 것, 장·절 제목의 주요 어휘를 바꾼 것 등을 보면 자신을 ‘편역자’로서 생각하지 않았던가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글은 이 책을 ‘김일면-임종국’의 『天皇の軍隊と朝鮮人慰安婦』, 『정신대실록』로 묶어 다루고자 한다. 이 글은 양자를 대조한 후, 차이가 없을 때 번역본을 인용하였다(인용문 부분은,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정대정 역, 2016,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역사공간, 56쪽).

24) 임종국, 1981, 『정신대실록』, 일월서각, 303쪽.

25) 임종국, 1981, 위의 책, 305쪽.

26) 와다 하루키, 2016, 앞의 책, 56쪽.

물’로 직조되어 있기 때문이다. 언급했듯, 마땅한 연구성과와 증언자가 없는 상황에서 김일면은 ‘전사(戰史)’, ‘비사(秘史)’, ‘비록(秘錄)’ 등의 이름이 붙은 전 일본군 장교나 병사의 회고담, 참전 작가의 수기 등에서 ‘위안부’에 관련된 부분을 절취해 신는다. 또, 인용된 ‘증언’ 중에는 일본전후의 ‘육체문학’ 작가로 알려진 다무라 다이지로(田村泰次郎)의 『春婦伝(춘부전)』도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週刊アサヒ藝能(주간아사히예능)』, 『週刊大中(주간대중)』과 같은 성인 잡지에 실린 참전 병사, ‘위안부’ 운영 업자의 회고담까지 싣고 있다. 언급했듯 임종국의 『여자정신대』의 한 단락도 인용되어 있다.

문제는 이러한 방대한 자료를 섭렵한 연구자의 성실성에도 불구하고, 주로 일본군 병사의 회고담을 인용하게 되면서 ‘위안부’가 병사의 시선으로 재현된다는 점이다. 『天皇の軍隊と朝鮮人慰安婦』-『정신대실록』은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종종 서술자(김일면-임종국)와 증언자(병사)의 목소리가 분리하기 어렵게 서술되어 있으며, 실제로 그들은 어떤 부분에서는 병사의 시선에 동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이들은 일제의 ‘민족 말살 음모’에 분노를 감추지 않지만 병사의 시선으로 그려지는 ‘위안부’ 모습에는 어떠한 논평도 달지 않는다. 『天皇の軍隊と朝鮮人慰安婦』-『정신대실록』에는 전 일본군 병사였던 이토 케이이치(伊藤桂一)의 글이 자주 인용되어 있다. 이토는 일본의 소설가로, 복지나, 난징, 상하이 등에서 참전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다음과 같은 서술을 보자.

이리하여 육군병원은 사상자로 가득 찼다. 병실이 초만원을 이루고 복도에까지 즐비하였다. 병원에 근무하는 위안부들은 병사들의 오물까지 취급했던 만큼 그들의 심정을 잘 알아서 오히려 간호부들 보다 더 알뜰하게 뒷바라지를 했다고 한다. 흡사 병사의 가족 같은 간호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거기서 일하는 여자들은 부상자들의 간호와 식사와 세탁물 처리에 쫓겼다. 밤낮으로 아무리 해도 일이 끝날 때가 없다. 그래서 위안부가 지쳐서 쓰러졌다.

당시 육군 제일병원에서 군의관으로 있던 한 의사의 그때 일기를 보면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9월 14일(1939년) 임시간호부 하루바라 다미꼬, 분마성 결핵으로 죽다. 과로가 원인이었다. 9월 15일, 노몽항분쟁이 정전된 날, 바람이 없고 하늘은 맑게 개였다.』

또 제 7사단의 부대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저런 여성들이 잘해 주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 가운데는 한국 부인들도 많이 섞여 있었지만 그녀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눈물이 설 새 없이 흐르고 그치지 않았다.』(伊藤桂一, 『전쟁과 여자』, 『週刊 산케이』, 昭和 46년 9월 6일 호).

일본 군대에서는 위안부라는 것을 거의 모든 부문에 활용하였다. 모든 사병의 성욕을 채워 주는 것은 물론, 간호부, 세탁부, 잡역부, 그리고 작부에 이르기까지 한이 없었다.(강조-인용자)²⁷⁾

‘김일면-임종국’은 이토의 글을 인용하면서 마지막 논평을 통해, ‘위안부’로 동원된 여성들은 성노예일 뿐 아니라 전시 상황에 따라 간호사와 잡역부로도 동원되어 가혹한 노동 착취를 당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런데 ‘김일면-임종국’이 인용한 ‘위안부’에 관한 서술은 매우 분명하게 병사의 시점에 고정되어 있다. ‘김일면-임종국’은 “병원에 근무하는 위안부들은 병사들의 오물까지 취급했던 만큼 그들의 심정을 잘 알아서 오히려 간호부들보다 더 알뜰하게 뒷바라지를 했다”는 이토 케이이치의 언술을 전하고 있는데, ‘위안부’와 위안소의 존재를 증명해주는 언술이라는 것에만 급했던 탓인지, 이것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없다. “오물까지 취급해서”, “심정을 잘 알게 되고”, 그래서 “알뜰하게 뒷바라지”하는 정성이 생긴다는 말화는 ‘위안’하는 측이 아니라, ‘위안’받는 측에서만 가능한 논리다.

이토는 그의 글에서 다분히 조선인 ‘위안부’에게 동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군 병사’라는 말화 위치를 이탈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시선은 당시 일본 사회에서 ‘위안부’가 재현되던 방식이다. 전

27) 임종국, 1981, 앞의 책, 135-136쪽.

장에서 돌아온 병사들이 넘쳐나던 패전 직후부터 전쟁기록, 소설, 영화, 연극 작품 속에 아주 친근한 조연 혹은 점경(點景)으로 ‘위안부’는 자주 등장했다. 이때 작품에 등장하는 ‘위안부’의 존재는 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 중 하나로 서술되어 있다. 병사의 시점에서 병사와 정교하는 소재로 재생되어 ‘나라를 위해 병사를 위로하는’, 헌신적이고 순종적인 여성으로 묘사되고 있었다.²⁸⁾

문제는 이러한 시선을 ‘김일면-임종국’이 비판 없이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각국의 ‘위안부’ 차이를 설명하는 장을 살펴보면, 저자는 버마에서는 일본군이 통치자 영국군을 몰아내준다는 환상을 심어줬기 때문에 “현지 여자들은 일본군에 대해 매우 호의적으로 정렬을 쏟았”고, “그것이 중국 전선(戰線)과는 다른 점”이라고 서술한다.²⁹⁾ 또, 일본인 ‘위안부’에 대해서는 “<이런 몸으로도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야말로 봉사 의식”을 보였으며, “내일이라도 죽을지 모르는 병사를 진심으로 위로해 주겠다는 성의가 있”다는 점에서 한국 여성과 달랐다고 기술한다.³⁰⁾ 나아가 이러한 전장의 ‘위안’은 낭만적 장면으로 묘사되기도 한다.³¹⁾

‘위안하는 여자-죽으러가는 병사’라는 구도는 ‘위안부’와 병사를 동일한 층위의 피해자로 놓아 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일단 ‘위안하는 여자-죽으러가는 병사’는 여성을 성적 도구로 파악하는 한에서 가능하다. 당시 전장에서 ‘위안부’가 ‘군수품’으로 취급되었다는 점이 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뿐만 아니라 ‘식민/피식민’의 권력 관계 내에서 조선인 ‘위안부’는 일본군 병사에 비해 하위주체이다. 그런데 이를 모두 균질한 ‘전쟁피해

28) 윤명숙, 최민순 역, 2015, 『조선인 군위안부와 일본군 위안소제도』, 이학사, 40-41쪽.

29) 임종국, 1981, 앞의 책, 220쪽.

30) 임종국, 1981, 앞의 책, 170쪽.

31) “사병들은 밤 하늘의 별빛을 쳐다보며 여자를 껴안고 남방 특유의 스콜이 쏟아지면, 등에 비를 맞으며 여자를 끼고 딛곤했다. 여자의 사타구니와 아랫배에는 수십 명이 지나간 정액이 풀처럼 흐들흐들했었다고 한다. (중략) 필사적으로 발악하는 그들의 전장(戰場)은 어떤 면으로는 맹렬한 음행(淫行), 위안부의 전장(戰場)이라고 할 수 있었다”(임종국, 1981, 앞의 책, 217쪽).

자'라고 하는 것은 이들 사이에 작동하고 있는 권력관계를 은폐하는 것이 된다. 일본군 병사의 동정과 연민은 이러한 권력관계 위에서 발화되는 회고적 감상일 뿐이다. 그런데 이 책을 기술하는 '김일면-임종국'은 젠더 권력에서는 지배자 쪽에, 제국주의 권력에서는 피지배자 쪽에 위치한다. 이들은 일본군대의 괴롭힘과 잔혹함을 강조하면서 일본 제국에 대한 강한 분노를 드러내지만, 젠더적 차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삼지 않는다. 더욱이 '김일면-임종국'은 '제국/식민지'의 권력관계뿐 아니라 '조선인/중국인/점령지 여성'의 차별적 위치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오직 제국/식민지의 권력관계만 문제 삼는다. 여기서 선택적 번역이 일어나는데, 제국과 식민지의 권력관계는 피식민자의 시각으로 전환되어 옮겨지지만 젠더관계에서의 비대칭적 권력관계는 인지되지 못한 채 단지 언어적 층위에만 번역된다.

또 '김일면-임종국'은 조선인 '위안부'와 일본군 하급병사의 연애와 동반 자살을 그린 다무라 다이지로(田村泰次郎)의 소설 『春婦傳(춘부전)』(銀座出版社, 1947.5)을 인용하기도 한다. 『춘부전』은 조선인 하루미(春美)가 일본인 애인을 잇기 위해 스스로 전장 '위안부'가 되고, 그곳에서 군대 부관의 정부(情婦)가 되지만, 그의 모욕적인 태도에 반발하여 그 부하를 선택하여 사랑한다는 줄거리로 이루어져 있다. 이 소설은 다무라의 5년 6개월간의 전장체험을 바탕으로 쓰였으며, 그는 서문에서 “일본여성이 공포와 경멸감으로 가려하지 않았던 최전선에서 정신(挺身)하며 그 청춘과 육체를 바쳐 스러져간 수만의 조선 낭자군(娘子軍)에게 바친다.”³²⁾고 밝힌다. 이후 『춘부전』은 1950년 다니구치 센키치(谷口千吉), 1965년 스즈키 세이준(鈴木清潤)에 의해 『曉(暁)의脫走(새벽녘의 탈주)』라는 제목의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전후 일본에서 식민지 출신 '위안부'의 대표적인 표상이 된다.

작가는 이 소설을 “조선 낭자군에게 바친다”라고 했지만, 여기에는 “작품

32) 田村泰次郎, 1974.4, 『日本小説』; 최은주, 2014, 『전후 일본의 '조선인 위안부' 표상, 그 변용과 굴절과정』, 『페미니즘 연구』14(2), 4쪽에서 재인용.

의 큰 틀이라고 할 수 있는 권력구조(젠더적/민족적)가 거의 문제시 되지 않³³⁾아 결과적으로 “중주국 남성작가의 ‘타자 표상’에 내재하는 폭력성”이 강하게 드러난다.³³⁾ 주인공 하루미가 애인을 찾기 위해 스스로 ‘위안부’가 된다거나, ‘일본군 병사-조선인 위안부’가 동일시되는 줄거리가 이를 보여준다. 덧붙이자면, 이 소설의 저변에는 장교만 상대했던 “일본의 여자들에 대한 복수심”이 서려 있다. 『춘부전』은 자국 여성에게 상처받고 조선인 ‘위안부’로부터 ‘위안’받은 중주국 하급 병사의 판타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³⁴⁾

그렇다면 민족의 남성인 ‘김일면-임종국’은 『춘부전』을 어떻게 이해했던 것일까. 『天皇の軍隊と朝鮮人慰安婦』-『정신대실록』에는 『춘부전』이 소설이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무라가 군대에서 체험한 위안부와 장교와의 싸운 이야기”³⁵⁾라는 설명과 함께 인용된다. 다음과 같은 인용을 살펴보자.

또 작가 다무라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싫은 손님은 욕을 해서 내쫓고 좋아하는 손님은 돈을 빌려 주면서까지 끌어 들이고, 즐거운 때는 노래를 부르고, 슬플 때는 큰 소리로 울고, 그야말로 천진난만한 여자들이다. 자기 욕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끝까지 좋아하

33) 최은주, 2014, 위의 논문, 8-9쪽.

34) “전쟁의 기간 동안, 대륙벽지에 배치된 우리들 하급병사들과 함께, 일본군의 장교나 그 정부인 후방의 일본 창부들로부터 경멸을 받으면서도, 총화 속에서 그 청춘과 욕체를 바쳐 스러져간 (조선) 남자군은 얼마나 다수였던가. 일본여자들은 전선에도 오지 않으면서 장교들과 함께 우리들 하급병사를 경멸했다. 나는 그녀들 (조선) 남자군에 대한 울고 싶은 정도의 모정과 일본의 여자들에 대한 복수심이라는 감정으로 이 작품을 썼다.” 인용문은 1947년 5월 긴자출판사에서 간행한 『춘부전』의 서문이다. 본래 『춘부전』은 1947년 4월의 『日本小説』 창간호에 게재될 예정이었으나, 조선인 ‘위안부’라는 설정이 미연합군총사령부(GHQ/SCAP)의 검열 과정에서 문제시되어 수정된다. 검열 후 ‘조선이름’, ‘조선씨’와 같은 민족명은 사라졌지만, 마늘과 고춧가루와 같은 표현은 그대로 남아 있어 주인공이 조선인임을 충분히 추측하도록 한다. ‘김일면-임종국’도 이 장면을 인용하며 『춘부전』을 조선인 ‘위안부’에 관한 증언으로 차용한다. 위의 인용문은 검열 후 ‘조선’이라는 민족명이 빠지고 출간한 책의 서문이다. 『춘부전』 중심으로 일본 전후 ‘조선인 위안부’ 표상을 연구한 최은주는 『일본소설』에 실린 서문에서 ‘조선’이 명시된 점, 본문의 내용 상 ‘조선인’임이 충분히 추측가능한 점을 들어 괄호 속에 (조선)이라고 표기하고 있다(최은주, 2014, 위의 글, 9쪽).

35) 임종국, 1981, 앞의 책, 155쪽.

고 싫어하는 사람은 철저히 싫어한다. 그 표현의 강렬함은 그녀들의 육체 속의 생명의 강렬함을 나타내고 있다. 독한 마늘을 먹고 매운 고추를 먹은 그녀들의 육체는, 육체 그 자체가 독하고 매운 한 의사 표시다.」(田村泰次郎, 『春婦傳』)

한국 위안부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병사들을 어쩔줄 모르고 좋아하는 심정의 이면에는, 그녀들에게 모멸적인 언사를 내던지는 장교들에 대한 복수심도 있다. 그녀들의 장교에 대한 저항은 장교들의 돌진을 가차없이 몽개버리는 일이었다. 오직 그 일만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저항이었다. 더욱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모멸적인 언사를 퍼붓는 장교에 대해 그 장교가 부리고 있는 젊은 당번병을 몰래 정부로 삼는 일이었다.³⁶⁾

‘김일면-임종국’이 인용한 다무라의 소설 속에서 조선인 ‘위안부’는 “독한 마늘을 먹고 매운 고추를 먹은”, “육체 그 자체가 독하고 매운 한 의사 표시”를 지닌 것으로 그려진다. “자기 육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끝까지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철저히 싫어”하는 조선인 ‘위안부’는 의사가 분명한 그야말로 ‘주체적’ 여성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위안소라는 폭력적인 제도에 조선인 ‘위안부’가 ‘독하고 매운 의사 표시’를 하거나 “육체를 좋아”하는 감정을 느끼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소설을 체험담처럼 인용한 ‘김일면-임종국’의 논평에는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전혀 없다. 도리어 소설의 줄거리를 차용하면서 조선인 ‘위안부’가 하급 병사를 사랑하는 것이 장교에 대한 복수의 방법이었다고 말한다. 이러한 끝에 다음과 같은 서술까지 등장하게 된다.

「한국 빼는 병이 걸리지 않아서 좋더군. 상급들은 일본 창녀, 우리들은 한국 빼, 그런데 상관녀석들이 몰래 우리들 영역을 침범하잖아.」

이같이 말할 정도로 한국인 위안부가 좋았다고 전해지고 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36) 임종국, 1981, 앞의 책, 163-164쪽.

그 하나는 좀 잘난 척 하는 일본 빼는 사병에게 매우 냉담하다는 것.
 그 둘째는 한국 빼는
무엇을 하건 일본 여자보다는 훌륭하다는 점을 인정받기 위해서 애써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거기다가 나이가 젊은 만큼 체격도 좋고 솔직하고 순정이 넘쳐 있었다.
 (중략)
전선의 사병과 한국 빼와는 어느 의미에서 차원을 같이하고 있었고 사이 좋은 동반자 같았다.(강조-인용자)³⁷⁾

병사의 직접발화인 것처럼 서술된 장면에서 저자는 일본인 ‘위안부’가 하급 병사에게 냉담했으므로, 병사들에게 한국인 ‘위안부’가 인기가 더 좋았다고 말한다. 이는 언급했던 자국 여성에 대한 다무라의 “복수심”과 완전히 일치한다. ‘김일면-임종국’은 다무라가 하급 병사와 조선인 ‘위안부’를 동일시 해 버렸듯 아무런 논평 없이 일본군 하급병사와 조선인 ‘위안부’를 “사이 좋은 동반자”라고 쓰고 만다.³⁸⁾ 어디까지가 병사 회고이고 어디까지가 ‘김일면-임종국’의 논평인지 알 수 없는 위의 인용문처럼, 일본군 병사의 시선과 민족 남성의 시선은 분리할 수 없을 만큼 뒤섞여 있다. 종주국 하급병사가 자국 여성에 대한 배신감을 조선인 ‘위안부’를 통해 해소하고 있다면,

37) 임종국, 1981, 앞의 책, 173쪽.

38) “사이좋은 동반자”라는 표현이 나온 만큼, 논란이 된 박유하의 『제국의 위안부』(뿌리와이파리, 2013)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은 일본군과 조선인 ‘위안부’를 ‘동지적 관계’로 표현한 것 등에 문제를 지적받아 학술적·법적 논란을 일으켰다. 본고와 관련된 부분만 간략히 언급하자면, 『제국의 위안부』는 ‘위안부’와 병사 사이의 연애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목소리를 억압했던 것이 한국사회의 가부장제라고 비판한다. 전 일본군 ‘위안부’의 증언 중에 일본군인과의 연애, 혹은 그를 그리워하는 증언을 실은 뒤, “실사 보살핌을 받고 사랑하고 마음을 허한 존재가 있었다고 해도, 위안부들에게 위안소란 벗어나고 싶은 곳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이런 식의 사랑과 평화가 가능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것은 조선인 위안부와 일본군의 관계가 기본적으로는 동지적 관계였기 때문이었다”(『제국의 위안부』, 67쪽.비삭제본)라고 썼다. 본고에서 이를 언급하는 것은 이러한 표현의 ‘오리지널’이 일본군 병사의 회고와 그것을 번역한 민족 남성의 글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중요한 까닭은 『제국의 위안부』가 일본군 병사(제국의 남성)와 이를 번역한 민족 남성의 어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나아가 『제국의 위안부』가 ‘민족주의-가부장제’를 강하게 비판했음을 상기한다면, 민족의 남성과 『제국의 위안부』의 언어가 닮아있다는 점은 매우 문제적이다.

민족의 남성은 ‘인기가 더 좋은’ 조선인 ‘위안부’에게서 민족적 우월감을 찾으려 한다. 이들은 완전히 성애화된 타자로서 ‘위안부’를 인식한 후, 제국 내부의 남성 권력관계 또는 제국-식민지 남성의 권력관계를 조선인/일본인 ‘위안부’에 투사하고 있다. ‘김일면-임종국’이 보인 일본에 대한 적개심에도 불구하고 병사의 증언과 이들의 서술이 위화감 없이 뒤섞일 수 있는 것은 양자의 서술이 제국으로부터 피식민 민족으로의 이동만 있을 뿐 그 인식구조는 근본적으로 상동하기 때문이다. 결국 ‘김일면-임종국’은 제국 병사의 남근적 시선을 민족적 적대선 저쪽에서 이쪽으로 그대로 번역하는 결과를 낳았다. 제국의 남성과 민족의 남성의 겹쳐진 시선 속에서 ‘위안부’의 목소리는 누락되고 그 표상만이 유동하면서 왜곡된다.

IV. 만들어진 ‘위안부’의 목소리와 ‘수기’라는 형식

『天皇の軍隊と朝鮮人慰安婦』-『정신대실록』에는 병사들의 목소리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유일하게 조선인 ‘위안부’ 김춘자(金春子)가 등장한다. 김춘자는 경기도 송파면 출신으로 16세에 정신대에 차출되어 ‘위안부’가 된다. 같이 차출된 4명의 16~18세 친구들과 함께 종로에서 업자에게 인계되고, 이후 신의주에서 압록강을 건너 만주의 안동(安東), 장성현(長城縣) 등에서 ‘위안부’ 생활을 하게 된다. 이는 근대전사연구회(近代戰史研究會)에서 펴낸 ‘女の戰記(여인의 전기)’ 시리즈 1권 『女の兵器-ある朝鮮人慰安婦の手記(여자의 병기-어느 조선인위안부의 수기)』(浪速書房, 1965)에 실려 있다. ‘김일면-임종국’은 이 책을 인용하여 위안소의 실태를 입증하려 했다.

근대전사연구회는 “15권의 『여인의 전기』의 근본은 사실(事實)”이며, “모든 것이 사실을 정확히 묘사하려는 의도에서 편집된 것”³⁹⁾이라고 밝히고

39) 金春子, 柳根周 譯, 『戰場の 女人裸像』, 現代思潮社, 1966, 207쪽. 이 책은 『女の兵器-ある朝鮮人慰安婦の手記』(浪速書房, 1965)의 최초 번역본이다. 원문과 차이가 없을 때에는 이 책

있지만, 이 책은 피해자의 ‘수기’라고 보기에 어려운 점이 많다. 그 이유는 첫째, 성적학대 장면이 지나치게 성애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16~18세의 여성들이 본격적으로 ‘위안부’ 생활을 하기 전에 일본군 장교에게 ‘바쳐지는’ 장면에서는 소위 ‘숫처녀’라는 여성의 몸에 대한 외설적인 판타지가 노골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여인의 전기’ 시리즈는 표면적으로 전시 최하위주체였던 여성의 목소리를 복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성들의 전쟁 피해는 성적인 것에만 집중되어 있고, 이는 독자의 관음증적 욕망을 자극하는데 쓰이고 있다. 둘째는 김춘자 일행이 순사의 협박에 의해 강제로 차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적 갈등 없이 매우 자연스럽게 ‘애국봉사단’으로서 자신들을 정체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강제 차출된 16~18세 여성→매춘부→애국봉사단’으로 스스로를 인식해 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병사나 업자와의 갈등은 물론이고 내적갈등마저 찾아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여자의 병기』의 서술방식은 앞서 살펴본 병사의 시선과 매우 흡사하다.

우리는 이 즈부터,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이곳의 병사들에게는 소중한 일인지를 잘 알 수가 있었다.

(중략)

그러나, 토벌 작전에서 돌아와서 우리를 보면 비로소, 자기는 이번 전투에서 살아서 이겨서 돌아왔다는 실감이 솟아나는 것 같았다. 그리하여 격렬했던 작전의 노고(勞苦)도, 비참한 전우(戰友)의 죽음이며 부상도, 우리들의 따스한 살결에 포곤히 감싸지면, 말끔히 잊혀져 가는 모양이었다.

우리도 이런 때엔 장사라는 입장을 떠나서 병사들을 소중히 해 주고 싶었다. 온 몸으로서 포옥 감싸 주고 싶었다. (중략)

우리는 그냥 기본이 좋은 체하면서 얼버무르고 있을뿐이었다. 진정으로 기분을 흥분시켜서 서비스 해 주는 것은, 방금 전쟁에서 돌아왔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탄환과 전쟁터의 냄새가 나는 병사들에게다.⁴⁰⁾

을 인용하기로 한다.

40) 金春子, 柳根周 譯, 1966, 『여자의 兵器』, 『戰場의 女人裸像』, 現代思潮社, 278~280쪽.

인용문에서 ‘나’(김춘자)는 전장에서 살아 돌아온 병사들에게는 “장사라는 입장을 떠나서 병사들을 소중히 해 주고 싶”었다고 말한다. 여기서 ‘장사’라는 말을 쓰지만, 또 다른 데서 김춘자 일행은 자신들을 “기생이나, 청루(靑樓)의 창부(娼婦)와는 다른”, “병사들을 위로해 줄 목적으로 조선에서 나온 애국 봉사대원”⁴¹⁾이라 칭한다. ‘위안부’를 관리하는 ‘나가기 중사’는 이들을 “아마도 나테시꼬”라 부르고, 이들은 이러한 명명에 사명감을 느낀다. 김춘자의 삶은 ‘강제 징집→매춘→위안’으로 이어지고, 마침내 그녀는 ‘위안’ 행위를 ‘숭고한 애국’으로 의미화한다. ‘위안부’ 여성의 자기 정체화가 국가주의 이데올로기로 귀결되는 것이나, ‘위안부’와 일본군 병사 사이의 연대감은 병사의 수기에서 자주 나타나는 서술이다. 가령, ‘김일면-임종국’도 자주 인용하곤 했던 이토 케이이치는 “결국, 장렬하고 용감하게 끝까지 싸우고 다 죽었다. 이런 병사들을 상대로 했으면 여자들도 나긋나긋하게 비어(秘語) 따위 속삭일 시간은 없었을 것이다. 장렬하게 안아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⁴²⁾라고 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위안부’의 행위를 전시 성폭력이 아닌 ‘장렬한 위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김춘자의 수기에는 일본인 ‘위안부’와의 경쟁심리 때문에 ‘서비스’가 좋았다고 회고한 병사의 이야기도 반복된다.⁴³⁾ 김춘자 일행은 “일본의 기생들은 모두 돈벌이 하러 와 있는” 데 비해, 자신들은 “일선의 탄환이 날으는 곳까지 와서 서비스를 해 주고 있”다고 병사들에게 강조한다. 또, 김춘자 일행은 일본인 ‘위안부’를 질투하고, 자신들의 ‘몸’이 일본인 ‘위안부’와 다르지 않음을 병사들에게 확인받으려 한다.⁴⁴⁾ ‘일본인 위안부↔조

41) 金春子, 1966, 위의 책, 284쪽.

42) 伊藤桂一, 1969, 『兵隊たちの陸軍史』, 番町書房, 212면.

43)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진술을 예로 들 수 있다. “조선의 여자들이 위안부로서 어떻게 일본병사들에게 헌신적이었는지는 조금이라도 야전 경험이 있는 자는 안다. 하지만 그것은 많은 경우, 일본병사에 호의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위안부의 입장에서 일본 내지의 여자에게는 지고 싶지 않다고 하는, 민족적인 체면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다”(伊藤桂一, 1969, 위의 책, 212~213면).

44) 金春子, 1966, 앞의 책, 292쪽.

선인/중국인 위안부↔점령지 여성’ 사이에는 차별이 있었고, 이로 인해 이들은 갈등관계에 놓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의 갈등은 차별적 구조에 대한 것이지 ‘경쟁심’에 따른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들은 전시 성폭력에 노출된 피해자라는 점에서 동일한 위치에 있었다. 이러한 관계를 ‘경쟁심’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극히 ‘위안받는 자’의 시선이며, ‘자국 여성에게 상처받은 하급 병사의 판타지’를 충족시켜주는 서사다. 즉, 『여자의 병기』는 ‘수기’의 형식을 빌려 재현해 낸 제국 남성의 미화된 기억 속의 ‘위안부’라고 하겠다.

이 책은 한국에서 네 차례 다른 이름으로 번역되었는데,⁴⁵⁾ 1981년 출간본 『죽음의 演奏』의 번역자 박현태는 “일군(日軍)의 행위에, 아니 일제(日帝)의 행위에 합리화된 것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정신대란 이름으로 우리의 젊은 처녀들이 일선에서 그들의 욕망의 도구로 사용된 기록으로선 거의 유일한 것이라 생각해서 번역”하였다고 밝힌다.⁴⁶⁾ 이처럼 『여자의 병기』는 ‘경기도 영평군 송파면 태생 김춘자’를 내세우고 있으나 그녀의 직접 언술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많다.

그렇다면 『여자의 병기』은 왜 ‘수기’라는 형식으로 기획되었을까. ‘여인의 전기’ 시리즈의 광고에서는 “여성의 눈으로 본 전기를 그려...”, “각 전선의 실태를 그린 다큐멘터리”와 같은 문구를 내세우며, 여성 시점의 “다큐멘터리”라는 점을 강조한다. 또 머리말의 기획의도를 살펴보면, 근대전사연구회는 1965년 당시 일본이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려는 움직임, 혹은 전쟁의 비참함을 “관념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지적하면서, 다시 전쟁의 실

45) 『女の兵器』 마지막 장에는 ‘여인의 전기’ 시리즈 15권에 대한 광고가 실려 있다. 1권은 김춘자의 『女の兵器』이고, 2권은 아우슈비츠 유대인 수용소 소장이었던 힐테가르트 코호의 수기 『가스室的裸像(가스실의 나상)』, 3권은 일본인 여성 吉田礼子 수기인 『生と死の彷徨(생과 사의 방황)』이다. 한국에서 번역될 때에는 주로 ‘여인의 전기’ 시리즈 1~3이 한 권에 묶여 출간되었다. 80년대 번역본에는 대표저자는 힐테가르트 코호로 표기되었다. 이 책의 원서와 지금까지 한국에서 번역된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近代戰史研究會, 1965, 『女の戰記①-女の兵器・朝鮮人慰安婦の手記』, 浪速書房株式會社; 日本近代戰史研究會 編, 柳根周 譯, 1966, 『戰場の女人裸像』, 現代思潮社; 힐테가르트 코호, 박현태 역, 1981, 『죽음의 演奏』, 白眉社; 힐테가르트 코호·김춘자, 유근주·조향 역, 1988, 『인간 사냥꾼』, 글벗사; 신동숙 편역, 2003, 『슬픈여인의 나상』, 해맞이.

46) 힐테가르트 코호, 박현태 역, 『죽음의 演奏』, 白眉社, 1981, 227쪽.

태를 조명하여 전쟁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음을 역설한다. 표면적으로 내세운 기획의도를 요약하자면, 전쟁의 가장 하위주체였던 여성의 눈을 통해 참상을 전함으로써 전쟁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획의도에 비추어 봤을 때, 그 내용은 노골적으로 성애화되어 있고, 또 군국주의 이데올로기에 동화되어 있다.

사실 『여자의 병기』가 발간된 당시엔 『다시 살아난 전쟁기록물의 봄(生き返った戦記ものブーム)』이라는 기사가 날 만큼 전쟁기록물은 쏟아졌다.⁴⁷⁾ ‘쇼와 40년대(1965~1974)’의 전쟁기록물은 그때까지 존재하던 전쟁의 ‘처절함’이 사라지고, 정서적이고 감상적인 색채를 띠는 회상의 형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시기 전장의 죽음은 나라를 위한 숭고한 일로 채색되어 나타나기도 했다.⁴⁸⁾ “여인의 전기” 시리즈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출간되었다. 기획의도와 내용의 불일치는 패전이라는 비극적 서사에 대한 상반된 욕망의 충돌-전범국이라는 현실과 군국주의에 대한 항수로 인한 것이다. 여기에 조선인 ‘위안부’의 수기는 전후 반성이라는 명분을 마련하면서도 동시에 패전의 상처와 제국에 대한 항수를 ‘위안’하는 장치가 된다. 즉, 피해자 증언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전쟁범죄를 ‘합법적’ 혹은 ‘윤리적’ 테두리 내에서 외설적으로 묘사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곧바로 상업적 효과와 직결된다. 이는 이 책의 한국어 번역본 광고에서 증명된다.

한국에서 이 ‘수기’는 전쟁·남성·파시즘에 대한 ‘고발’이라는 점과 “여성의 손으로된 전쟁실기(戦争實記)”라는 점을 강조하는 광고 문구와 함께 번역·소개 되었다. 그런데 광고의 다른 한쪽에는 “日本에서 百萬부 매진! 女性독자만도 三〇만명이나 되는 날개돋친 책!”이라는 홍보와 “섹스의 진수(眞髓)”, “女體의 비밀”과 같은 외설적인 문구도 쓰여 있다.⁴⁹⁾ 일본과 마찬가지로 ‘실기’라는 점을 강조하고, 여성의 전쟁체험을 성애화하여 독자의 관심

47) 『生き返った戦記ものブーム』, 『週刊言論』, 1967.3.22.; 요시다 유타카, 2004, 155쪽에서 재인용.

48) 요시다 유타카, 2004, 위의 책, 123~126면 참조.

49) 『광고』, 『동아일보』, 1966.12.22. 3면.

을 유도하려는 점이 드러난다. 다만 전쟁에 대한 ‘경각심’이 ‘고발’로 바뀌면서 제국으로부터 피식민국으로 시선의 전환이 일어난다. 그러나 ‘실기’, ‘고발’이라는 형식이 외설적 묘사를 정당화하거나 혹은 은폐하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이처럼 ‘위안부’의 목소리는 기획·편집자의 목적에 따라 왜곡되었다. 먼저, 일본에서는 전쟁기록물의 붐을 타고 군국주의를 향수하고, 전쟁의 기억을 ‘위안’하는 방식으로 소비되었다. 이는 ‘김일면-임종국’에 의해서 일본의 전쟁범죄를 입증할 증거로서 발췌·인용되었고, 더불어 일본에 대한 적개심도 표출되었다. 이들은 김춘자 일행이 조선인 순사에 의해 강압적으로 차출되고 장교들에 의해 처녀성을 잃는 장면을 부각하여 인용했으며, 이를 통해 일본 군대의 야만성을 증명하려 했다. 증거로서 수기를 인용한 만큼 수기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논평을 달지 않았고, 대신 김춘자가 스스로를 ‘애국 봉사대원’이라 정체화하는 부분은 인용하지 않았다. 반면 1966년 한국에서 번역·출간 과정에서는 전쟁에 대한 고발이라는 형식을 취하면서도 전시 성폭력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번역자는 후기에서 “<남> 순사를 잡아라!”를 반복하면서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을 표출하지만, 여성에 대한 왜곡된 성적 판타지를 여과 없이 노출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실기’라는 형식 곧, 만들어진 ‘위안부’의 목소리를 내세우면서 (무)의식적으로 자신들의 욕망을 그 목소리 위에 투사하고 있다.

이러한 왜곡이 텍스트 표면에서 발견되는 것이 81년 박현태의 번역본이다. 앞서 서술했듯 그는 편집자의 말에서 이 수기가 온전히 ‘위안부’의 목소리가 아닐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런데 그는 번역을 넘어 몇 가지 서술을 삭제·첨가하였다.

(1)-가

でも、私たちはともかく一日で五百十円ももうけたのだ。何でも部隊長の
大尉さんの月の給料よりも多いぐらいだそうだ。

—時間ばかり体を休めるために寝た。(『女の兵器・朝鮮人慰安婦の手記』,

147面)

(1)-나

그러나 어쨌건, 우리는 하루에 150원이나 벌은 것이다. 그건 부대장인 대위의 월급보다도 많은 돈이라는 얘기였다. 한 시간 쯤 몸을 쉬기 위해서 잤다. (『전장의 女人裸像』, 268쪽)

(1)-다

그러나 어쨌건 우리는 하루에 150원을 벌은 것이다. 한 시간 쯤 몸을 쉬기 위해서 잤다. (『죽음의 연주』, 300쪽)

(2)-가

「おまえたちの行くところは十カ所だ。ご苦勞だがな」

「どこへでも行くわ。軍の命令なんでしょう」

「ああ、そうだ」

「それじや、名譽なことですもの」

私たちは將校には朝鮮ビーとさげすみをもつて呼ばれることはあつても、兵隊さんたちには、どこへ行つても大事にされることを知つていた。(『女の兵器・朝鮮人慰安婦の手記』, 194面)

(2)-나

「너희들이 갈 곳은 열 군데다. 수고스럽지만…」

「어디라도 가겠어요. 군의 명령 아녜요」

「아아, 그렇지」

「그렇담, 명예스런 일인 걸 뭐요」

우리는 장교들한테선 『조선치』라고 경멸당하는 일은 있어도, 병사들한테선 어디로 가나 소중히 다뤄지는 걸 알고 있었다. (『전장의 女人裸像』, 286쪽)

(2)-다

「너희들이 갈 곳은 열 군데다. 수고스럽지만……」

「하는 수 없지요. 군의 명령이라면」

「아아, 그렇지」

우리는 장교들한테선 <조선치>라고 경멸당하는 일은 있어도 병사들한테선 어디로 가나 소중히 다뤄지는 걸 알고 있었다.(『죽음의 연주』, 322쪽)

장면(1)과 장면(2)의 가, 나, 다는 각각 일본어본 원문(가), 66년 번역본(나), 81년 번역본(다)이다. 66년 유근주의 번역은 어휘 선택 등의 근소한 차이를 제외하고 원문과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런데 (다)는 이러한 차이 외에 생략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어 보인다. ‘(1)-다’의 경우 ‘위안부’가 ‘번’ 돈이 장교보다 더 많았다는 진술을 삭제했다. 장면 (1)은 병사의 계급에 따른 월급을 제시하고, 위안소에 쓰는 돈이 그들 월급의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설명하던 끝에 등장하는 진술이다. 바로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장교의 숙소로 찾아 갈 경우 “출장화대라고 해서 5할을 더 받도록 되어 있”다는 것도 생략해 버린다.⁵⁰⁾ 장면(2)는 격전지로 보낼 ‘위안부’를 차출하는 장면이다. 원문에는 ‘위안부’가 “어디라도 가겠다”고 답하지만, ‘(2)-다’에는 “하는 수 없지요”라는 소극적인 대답으로 고쳐 놓았다. 또 다음에 이어지는 ‘명예로운 일이다’라는 대답은 아예 삭제해 버린다.

이러한 굴절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위안부’에 관한 논점을 포함하고 있기에 문제적이지만, 이 자리에서 논하고 싶은 것은 ‘수기’의 형식을 내세우면서도 선택적인 생략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특히 선택적 생략이 ‘위안부’에 대한 가부장적 편견과 ‘위안부’를 민족의 피해자 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욕망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1)의 경우, ‘위안부’가 돈을 ‘버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드러나는데, 돈을 번다고 하는 순간 이는 전쟁 ‘피해자’가 아니라 ‘매춘’이 되기 때문이다.⁵¹⁾ 더하여 (2)에서도 ‘위

50) 將校の中には、自分の宿舎へ泊まりに来いと伝令兵に言わせてくるものもある。

そのいう時は、花代が出花と言つて五割おけいになる。(『女の兵器・朝鮮人慰安婦の手記』, 150面)
장교들 가운데에는 자기 숙소로 묵으로 오라고 연락병을 보내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 경우에는 출장화대(出張花代)라고 해서 5할을 더 받도록 되어 있었다(『전장의 女人裸像』, 269쪽).

위의 경우에도 81년 박현태의 번역에서는 밑줄 친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 해당 부분은 박현태 역, 1981, 301쪽.

51) ‘위안부’ 운동의 역사에서 일본인 ‘위안부’가 오랫동안 배제되었던 것도, 그들이 제국의

안부'가 자신의 행위를 '애국'으로 의미화하는 것을 삭제한다. 뿐만 아니라 박현태는 '위안부'가 병사에게 노골적으로 교태를 부리거나, '위안' 행위를 즐기는 장면, 일본 여성에게 경쟁심을 느끼는 장면 등의 서술을 축소·삭제하여, '위안부'를 민족의 피해자의 형상으로 그리려고 한다. 이는 그가 임의로 첨가한 부분에서 더욱 확실하게 나타난다. 앞서 전장에서 돌아온 일본군 병사를 위안하는 장면(각주 39)의 말미에 박현태는 “그러나 과연 우리는 어느나라 민족이더냐!”라는 문장을 삽입하여 민족의식을 환기시키기도 하고, 또 탄환 냄새를 풍기며 전장에서 돌아온 일본군 병사에 대한 '위안부'의 '애정'에다 “그것은 인간과 생명에 대한 애정이다”라는 문장을 삽입하여 그것이 '애국'이 아니라 보편적 인류애로 읽히도록 만든다.⁵²⁾ 민족 남성의 번역은 '위안 받는 자' 곧, '병사'와 같은 젠더적 위치에서 조선인 '위안부'가 순수한 민족의 피해자가 되길 바라는 것이다.

V. 성애화된 전장의 여성

주인 남자나 여자는 대문간 방에 딱 앉아서 지키고 살림을 거기서 했다. 우리들이 도망갈까봐 지킨다고 문 가까이에 있었던 것이다. 대청을 끼고 주인방이 있고 방 다섯 개가 복도를 사이에 두고 마주 늘어서 있었다. ……

국민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애초 매매춘에 종사하던 여성이었던 이유도 있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의 핵심은 인신 구속의 상태에서 자행된 전시 성폭력이라는 데 있다. 설령, 매매춘 여성이었다 할지라도 그녀가 전시 성폭력의 피해자라는 데는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번역자가 '돈 버는 위안부'에 대해 (무)의식적 거부로 보이는 것은 매매춘 여성에 대한 낙인의 이면이라고 여겨진다. 더불어 밝혀두자면, 한국사회에서 '소녀상'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 우려는 '소녀'라는 상징이 자칫 순결 이데올로기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그렇다고 여성을 차출했던 식민지적 차이를 무화할 수 없으며,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을 간과할 수도 없다. '소녀상'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제국/식민지의 권력관계를 무화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순결 이데올로기에 함몰되지 않도록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돈 버는 위안부'의 모습을 삭제한 81년 박현태의 무의식은 이러한 논쟁적인 한 지점을 보여준다.

52) 힐테가르트 코호, 박현태 역, 1981, 앞의 책, 313쪽.

그 여자가 자기네더러 ‘오토상’, ‘오카상’이라고 하라 했지만 그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⁵³⁾

위 인용문은 1991년 김학순의 공식적인 증언 이후 채록·간행되기 시작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의 증언집 중 일부분이다. ‘위안부’ 증언자들은 위안소 운영 업자들을 대개 ‘주인’, ‘그 여자/ 그 남자’, ‘관리인’ 등으로 부르지만, ‘어머니/아버지’라는 뜻의 말로 부르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실제 증언집을 보면 증언자들은 고향의 그리운 부모님을 ‘어머니/아버지’라 부르고, 업자들은 ‘오까상(おかあさん)/오토상(おとうさん)’이라 부른다. 오바상(할머니), 오지상(아저씨) 등도 마찬가지다. “여자들은 병원 근처에 열 명 배치받아서 우리가 처음 가고 뒤로는 안 왔어요. 거기 오바상, 오지상은 우리 감시만 했어요.”⁵⁴⁾라는 식으로 한국어로 증언하던 중에도 업자는 ‘오바상, 오지상’으로 지칭한다. 여기서 ‘오까상/오토상’은 ‘어머니/아버지’라는 문자적 의미로 일대일 교환이 되지 않는다.

1981년 박현태는 조선인 ‘위안부’ 김춘자의 수기 『여자의 병기』를 번역하면서 일본의 출판사·편집자에 의한 왜곡을 염두했고, 그리하여 박현태 스스로도 수차례 중요한 구절을 삭제·첨가했다. 그것은 대체로 ‘위안부’를 순수한 피해자상에 가깝게 만들기 위한 구절이었다. 그러나 정작 번역되지 않았던 혹은 번역되지 말아야 했던 말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한국어 번역본에서 김춘자가 업자를 지칭한 ‘오까상/오토상’은 모두 ‘어머니/아버지’로 매끈하게 번역이 되어 있다. 언급한 대로 김춘자의 수기는 한국에서 네 차례 번역되었는데, 네 가지 판본 모두 고향에 있는 어머니도 ‘어머니’, 업주 ‘오까상’도 ‘어머니’라고 번역이 되어 있다. 물론, ‘김춘자’라는 조선인 ‘위안부’가 일본에서 증언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변별되지 않았을 터다. 일본어로

53) 김분선, 1997, 『공장에 가서 돈을 벌려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한국정신대연구소 엮음,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2, 한울, 105쪽.

54) 김소란, 1999, 『아무도 만나기 싫어』, 한국정신대연구소·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엮음,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3, 한울, 54쪽.

증언해야 했던 ‘위안부’라면 이번엔 고향의 어머니를 부를 말-‘오까상’이라 표현할 수 없는 이 없었을 것이다. ‘오까상’과 ‘어머니’라는 말은 조선인 ‘위안부’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나서야 분리될 수 있었다. ‘오까상’이라는 아주 사소한 단어가 웅변하는 것은 ‘위안부’의 목소리가 발화되기 전까지 그들의 목소리는 번역된 목소리, 다시 말해 누군가에 의해 재현된 목소리로 존재할 뿐이었으며, 그것은 언제나 재현자의 인식을 통과한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1991년 이전 ‘위안부’는 당사자는 드러나지 않은 채 재현(re-present)으로만 존재했다. 가장 단순한 의미로 재현을 눈앞에 존재하지 않거나 스스로를 표현하지 못하는 실물을 표현하는 행위, 대리하는 행위라고 할 때, 1991년까지 ‘위안부’는 존재하지만 침묵해야 하는 존재 곧, ‘재현/표상’으로서만 인식되는 존재였다. 먼저, ‘위안부’는 참전 군인의 회고 속에서 등장했다. 전쟁 기록물은 일본의 패전 직후부터 계속해서 생산되었지만, 특히 쇼와 40년대(1965~1974) 일본의 경제 부흥과 더불어 전쟁은 낭만적으로 기록되기 시작했다. ‘위안부’는 참전 병사들의 기록 속에서 전쟁과 군국주의를 향수하게 하는 소재로써, 혹은 그 시절을 ‘위안’하는 존재로 재현되었다. 나아가 전쟁 기록물의 출판 상황과 맞물려 전시 성폭력은 남성 판타지를 충족시켜주는 서사로 왜곡되어 소비되었다. 조선인 ‘위안부’의 ‘수기’라는 이름으로 전쟁 기록물이 기획·출간되고 또, 한국에서 번역되기도 했다. 한일 양국의 선전 문구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전쟁기록물의 범람 속에서 ‘홍행’을 유도하는 색다른 기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기’라는 형식은 전쟁의 참상을 고발한다는 윤리적 명분을 부여해 주는 것처럼 보이나, 그것은 실제로 전시 성폭력을 외설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허울이 되어 주었다. 이 ‘수기’에는 남성 병사의 진술에서 보이는 성적 판타지, ‘위안부’의 대상화가 여실히 드러난다.

한편, 1970년대 한국과 일본에서는 ‘위안부’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논문과 책이 출간되었다. 임종국과 김일면은 공식 증언자도 문서도 없던 시절 군인·군속들의 회고에서 발견되는 ‘위안부’의 모습을 수집하여 그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다. 그들은 위안소를 일본군의 야만성을 증명하는 것 혹은 민족

말살정책의 음모로 파악했다. 이때 ‘위안부’는 제국에 의해 훼손된 민족과 등가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훼손된 육체’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제국에 대한 적개심도 비례하여 커지지만, 이와 함께 ‘위안부’는 ‘훼손된 존재’로서 사회에 나타날 수 없게 된다. 귀환한 여성이 곧바로 ‘환향녀’로 미끄러지는 명명에서 알 수 있듯, ‘위안부’는 침묵하는 한에서, 혹은 ‘환향’하지 못하는 한에서 민족의 피해자로 남을 수 있고, ‘순결한’ 피해자인 한에서 ‘민족’이라는 공동체에 받아들여 질 수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근본적으로 남성중심적인 사고 안에서 가능한 것이고, ‘민족-제국’의 남성이 공유하는 기반 위에서 ‘위안부’는 다시 ‘위안하는 존재’로 타자화되었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 임종국·엄영식, 1969, 『빼앗기고 끌려가고-징용·징병·공출』, 申奭鎬 엮음, 『光復을 찾아서』, 新丘文化社
- _____, 이진제 교주, 2016, 『친일문학론』, 민족문제연구소
- _____, 1973.11, 『女子挺身隊』, 『月刊中央』
- _____, 1974.3, 『女子挺身隊』, 『アジア公論』
- _____, 1981, 『정신대실록』, 일월서각
- _____, 1991, 『실록친일파』, 돌베개
- 朴慶植, 박경옥 역, 2008, 『조선인 강제연행의 기록』, 고즈윈
- 金一勉, 1976, 『天皇の軍隊と朝鮮人慰安婦』, 三一書房
- 近代戰史研究會, 1965, 『女の戰記①-女の兵器・朝鮮人慰安婦の手記』, 浪速書房株式會社
- 日本近代戰史研究會 編, 柳根周 譯, 1966, 『戰場の 女人裸像』, 現代思潮社
- 힐테가르트 코호, 박현태 역, 1981, 『죽음의 演奏』, 白眉社

국내외 논저

- 문형구, 2017.5.28., 『기획-‘위안부’ ②-2』 82년 ‘에미 이름은 조선빼였다’로 위안부 실상 고발한 윤정모 작가, <<미디어 오늘>>
- 배상미, 2014, 『위안부 담론의 페미니즘적 전환의 필요성』, 『여/성이론』 31
- 윤명숙, 최민순 역, 2015, 『조선인 군위안부와 일본군 위안소제도』, 이학사
- 윤영실, 2017, 『동아시아의 ‘장소들’과 한국근대문학의 탈영토화』, 『현대소설연구』 67
- 이영호, 2017, 『위안부 문제의 등장과 재일조선인 김일면』, 『일본학보』 113
- 이혜령, 2012, 『인격과 스캔들-임종국의 역사서술과 민족주의』, 『민족문화연구』 56
- 정운현, 2006, 『임종국 평전』, 시대의 창
- 최은주, 2014, 『전후 일본의 ‘조선인 위안부’ 표상, 그 변용과 굴절과정』, 『페미니즘 연구』14(2)
- 이타카키 류타·김부자 엮음, 배영미·고영진 역, 2016, 『‘위안부’문제와 식민지 지배 책임』, 삶창
- 요시다 유타카(吉田豊), 하종문·이애숙 역, 2004, 『일본인의 전쟁관』, 역사비평사
-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 남상구 역, 2013, 『일본군 ‘위안부’ 그 역사의 진실 : 일본군 ‘위안부’제도란 무엇인가?』, 역사공간
-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2016, 정대정 역,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역사공간

이토 케이이치(伊藤桂一), 1969, 『兵隊たちの陸軍史』, 番町書房

투고일 : 2018년 5월 15일, 심사완료일 : 2018년 6월 14일, 게재확정일 : 2018년 6월 15일

■ Abstract ■

‘Korean Comfort Women’, Fluid Representation

Lee, Ji-eu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This study investigated how the texts representing ‘comfort women’ were produced, distributed and translated before official testimonies about Korean ‘comfort women’ appeared. Unlike the official denial, prior to the first testimony, many representations of ‘comfort women’ were produced. These representations were often distorted depending on the speakers’ location and intentions. The texts representing ‘comfort women’ prior to 1991 are important in that they clearly depict how ‘comfort women’ were perceived as individual subjects of speech, and accordingly, how they were distorted and refracted. In addition, by examining the aspects of representation, the power relations still operating can be understood. This study investigated the texts written by Im Jong-guk, who would write the existence of ‘comfort women’ in the memory of the nation under this critical mind. Im Jong-guk extracted and cited contents related to ‘comfort women’ from war recordings and reminiscences published in Japan to reveal the reality of Korean ‘comfort women.’ The texts on ‘comfort women’ were supplemented, oscillating between studies of Im Jong-guk and studies of Korean-Japanese Kim Il-myeon. The appearance of ‘comfort women’ discovered in the retrospect of Japanese soldiers became expressed as the ‘rage’ on the empire, going through ‘Kim Il-myeon-Im Jong-guk,’ men of the nation. However, there were no accounts from Japanese soldiers’ perspectives on the assumption of their being ‘comforters.’ ‘Im Jong-guk-Kim Il-myeon’ wrote representations of ‘comfort women’ while they assimilated within gendered positions as ‘the comforted.’ Furthermore, the memoirs of “comfort women” were distorted by publishing companies, translators, and so on. However, without raising

any questions, only the parts needed were taken and quoted. By looking at the distortion patterns, this research explores the representative meanings behind “comfort women” in Korea and Japan.

Key words : Korean comfort women, War records, representation of comfort women, Im Jong-Guk,

Kim Il-myeon

